

7월의 기도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말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게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이태원내과의원,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말의 힘

말을 분석하면 이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하버드협상연구소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신혼부부의 말을 분석하여 그들이 이혼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최근에 함께 겪었던 갈등에 대해 몇 분간 얘기해 달라고 한 후 그들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을 단 30초만 분석해도 결혼생활을 지속할지, 이혼할지 90퍼센트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는 비방의 말과 인정의 말이 1대 5였습니다. 즉 비방하는 말을 1번 했다면, 인정하는 말은 5번 했고, 그런 경우는 결혼생활이 실제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이 예측된 부부들은 인정하는 말을 1번 했다면, 비방 하는 말은 5번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더욱 높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5번 하고 비난하는 것을 1번 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1번하고 비난은 5번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희망성쇠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로부터 그것을 시작 하라는 것입니다. 혀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선한 말을 자기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면 그 말이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명을 주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5년 홍콩 성회"



"하나님은 홍콩을 통해 중국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홍콩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홍콩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브 홍콩 2005> 성회가 홍콩 섬 코즈웨이 베이에 위치한 홍콩 스타디움에서 2005년 6월 16,17 양일간 개최되었다. 홍콩목회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관한 당시 성회는 양일에 걸쳐



총 4만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하여 대규모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브 홍콩 2005> 성회는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교회를 비롯해 홍콩 내 2백여 교회가 참석하여 대성회를 이루었다. 홍콩의 부흥과 중국복음화를 위해 마련된 당시 성회에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참석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6년 인도 성회"



인도하나님의성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성회가 인도 첸나이 최대교회인 뉴 라이프 교회(New Life Assembly of God Church)와 YMCA 대운동장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2016년 6월 8~9일 양일간 개최됐다. 인도하나님의성회(총회장 데이비드 모한 목사)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이 주관했던 당시 성회는 '지경을 넓혀라'는 주제로 인도하나님의성회 8000여 교회가 모여 100년동안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나타나 되어 인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흥과 헌신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지난 1994년 약 150만명이 참석해 인도 개신교 최대 집회로 기록된 조용기 목사의 마드라스(첸나이 옛이름)대성회 후, 22년만에 첸나이를 방문했던 조용기 목사는 인도하나님의성회100주년을 축하하며 4차원의 영성을 통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6월 9일 YMCA대운동장에서는 약 30만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을 축하하는 대성회가 열렸다. 찬양과 워십으로 시작된 성회는 인도를 위한 기도와 100주년 축하 케이크 커팅, 순복음강남교회 한국무용단의 공연 후, 인도복음주의 교회의 에스라 수르구남 주교가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당시 성회를 주최했던 데이비드 모한 목사는 "지난 100년간 인도하나님의성회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100주년 성회를 더욱 뜻 깊게 하기 위해 세계적인 주의 종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다. 100주년 성회를 계기로 인도하나님의성회는 성령충만의 믿음으로, 2020년까지 2만 5천 개의 교회를 개척해 인도 복음화에 더욱 헌신하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죄로 인한 인간의 실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 하심에 대한 반응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저 살지요.”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죽은 뒤에 희망이 있어요?”라고 물으면 “죽은 뒤에 희망이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영이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환경이나 생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 것을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귀, 명예, 권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2.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봐도 영은 멸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아들에게 맡긴 심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29절)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리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다 죄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영혼이 잘되었기 때문에 병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주인인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은 불멸의 영혼도 없고 하

나님도 계시지 않고 천국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영혼 불멸도 신도 천국도 지옥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자 종들이 와서 가마니 때기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여를 아름답게 꾸미고 수많은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가 그 묘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냉수 한 방울을 원합니까? 한 바가지를 원하지 않고 한 방울을 원했습니다.

그만큼 음부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의 빛이 사라진 곳이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요, 예수 있는 인생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새 몸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새 몸을 입습니다. 그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를 막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 3:20)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45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희망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제45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오대양 육대주에 파송된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성전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됐다. “희망의 선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번 대회는 5월 2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29~31일 선교사 수련회가 영산수련원에서, 31일 저녁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미스바 기도가 대성전에서 각각 진행됐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캠프도 함께 열렸다.

지난 5월 29일 오전 대성전에서 열린 선교대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제자교회 담임목회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태근 목사 총무 엄진용 목사 등 교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영산선교형제협의회 주최 지도자 성령충만 기도회 열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마귀를 대적하는 방패는 예수 십자가” 강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6월 4일 영산선교형제협의회가 주최하고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이 후원한 지도자 성령충만 기도회에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여!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기도원 대성전에서 진행됐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다.

성도들의 기립 박수 속에 등단한 총재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시 84:11)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신앙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마귀의 화살을 피할 방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하려면 늘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식 기도, 불퇴전의 기도에

총재 조용기 목사는 권면을 통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들을 환영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1대 선교사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며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서야 담대히 복음 전파에 나섰다”고 전한 조용기 목사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와 물질, 전도로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나도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선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서자고 강조했다.

을 받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 후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신유 기도를 선포했다.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특히 제자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를 에워싸고 스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제의 모습에 감동

성회에서는 또 한국교회 및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리고 형제교회 사역을 위해, 순복음의 전 성도가 성령충만 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